

숨겨진 가능성을 1318 Happy

백광흠 1318 Happy Zone 서대문 소장 / 1318 Happy Zone 사업단 팀장



를 발견해가는 청소년 시기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모델사업 '1318 Happy Zone'

청소년층 1318세대(13~18세)를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1318 Happy Zone' 이 문을 열었다. 1318 Happy Zone이란 교육·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중·고생 지원 사업이다. SK와 보건복지부,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협력하여 청소년 전용공간 '1318 Happy Zone'을 전국에 40개소 구축하고, 지역 NGO에 40개소의 '1318 Happy Zone'을 위탁·배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모델사업'이다.

특히 1318 Happy Zone은 모델사업 시행 과정 가운데 기업의 사회 공헌과 민간 조직의 자치 역량이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정부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기업과 민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SK는 재정을 맡아 청소년 센터 40개소 구축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센터 구축시 부터 협력하여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 체계를 확보한다. 그리하여 종국엔 1318 Happy Zone 이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모델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 지역의 방과 후 학교를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각 군의 1318 Happy Zone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준다.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지난 20년간 빈곤 결손 아동 지원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NGO 로써 전국 40개소 청소년 센터 구축을 위한 위탁과 배분, 필요한 교육사업을 담당한다.

“집처럼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하지 마 하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해 주세요.”

1318 Happy Zone 서대문에게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개소식을 앞두고 모인 회의였다. 아이들에게 공부 이야기도 나왔다. “좀 더 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 있던 은주(가명)가 대답한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아이들 생각은 어른들이 예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다. 공부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생각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의 목소리 안에서 많은 의욕과 열심을 엿본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앞으로 문을 열게 될 해피존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일본어를 배우게 해 주세요. 제빵조리사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이제 못 따라가겠어요.” 아이들 입에서 나온 공부에 대한 욕구와 생각들의 폭넓음에 교사들은 깜짝 놀란다. 의견들은 무척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들을 내놓는다.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표현할 충분한 동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가정에 그대로 전이되어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 아동들이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교육적 복지적 장벽 앞에 서도록 만들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공부하여 자아를 성취한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적절한 교육과 문화적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가난을 그대로 대물림 하는 비극에 처해진다. 특히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기

아름다운 현실로 Zone 서대문

청소년기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

1318 Happy Zone 서대문은 향후 2009년까지 세워질 40개 소 해피존의 1호점인 셈이다.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해피존으로 향한다. 밤 10시까지 때로는 집단으로 또 때로는 개별적으로 학습과 문화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와 규칙, 나눔, 생활, 또래 관계는 취약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에 무척 중요한 따뜻한 공동체 기능이다.

1318 Happy Zone 서대문에서는 서대문 종로 지역의 1318 청소년 세대 가운데 교육, 문화 복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정보·문화·안전·지역사회네트워크 등 청소년기의 개별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개별 청소년들의 특성과 진로, 환경에 따라 학습지도 하나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인근 대학의 자원봉사자 교사와 청소년들은 1대1 멘토링으로 연결되어 학습 자체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지지가 되는 관계형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다. 다음 달에 숙명여대 글로벌인재자원개발센터와 연합하여 진행될 캠프를 통해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격과 내적 외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리서치 될 것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향후 센터 실무자들의 정보는 아동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학습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문화는 빠뜨릴 수 없는 주제다. 일반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특히 학습과 문화 영역은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생명처럼 다루게 될 화두인 셈이다. 청소년들은 그 자체가 문화 생산자이다. 밴드나 풍물 같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는 해피존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해피존 서대문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구상하고 있는 해외 Work Camp (해외 자원봉사캠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단지 내적 외적 상처를 해결해



주고 문제를 감소시키며 도와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환경과 자원이 제공되었을 때 이들이 또래 아동들의 건강한 리더로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도가 될 것이다.

센터, 아이들의 가능성 실현 창구

학교가 끝나 센터에 오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중학교 3학년 미정(가명)은 쿠키소녀다. 얼마 전 멋진 별명이 붙었다. 해피존 서대문 개소식 때 야외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밴드와 풍물이 진행되는 동안 모인 손님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자기가 직접 구워 만든 쿠키를 나누어준 때문이다. 미정이 쿠키는 늦게 올 추운 야외 행사를 따뜻한 피로연을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미정은 올 겨울 방학 조리사자격증 시험에 도전한다. 우리는 미정이가 그 꿈대로 십 몇 년 후에 멋진 호텔 전문 요리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그리고 그때 여기 해피존 서대문을 자기에게 힘이 되 주었던 따뜻한 공동체로 기억하고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얼마 전에 자기계발과 성장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 모 연구소에서 프로그램 협의차 해피존 서대문을 방문했다. 즐거운 회의가 끝나고 담당자가 물었다.

“최송한 질문인데요. 혹시, 이 아이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천재성 같은 것들이 일찍부터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만 더 깊이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그래요.” “그건 소장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의 눈으로 보아서 그런 것 아니세요?”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지만 그대로 두면 차가운 현실적인 장애 앞에서 그대로 묻혀 버릴 그 가능성들을 실제로 실현시키라고 이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